

제주 교방(敎坊) 관련 예술의 전통과 문화원형 탐색을 위한 이론적 고찰*

-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

강경호**

<목 차>

1. 머리말 - 제주 교방 관련 예술문화 인식의 현주소
2. 문헌에 기록된 제주 교방 및 기생 예술의 전통
3. 제주 교방 관련 예술의 문화원형 탐색을 위한 시론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제주 교방 및 기생 관련 예술문화의 전통을 살펴보고 그 문화원형 고증의 학술적·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여러 문헌 자료를 검토하고, 제주 교방 및 기생들의 풍류 현장과 연행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근까지 제주의 전통문화 연구에서 교방과 기생, 그 관련 예술 및 문화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대상이었다. 제주만의 전통 문화가 중시되는 문화적 환경에서 교방 및 기생 관련 예술이나 문화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졌다고 볼 수 있고, 근대전환기를 거치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거의 단절되어 간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래에 들어 제주 교방 및 기생 예술문화에 대한 연구들이 제출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심층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은 바 이에 대한 이해와 그 학술적·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성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8017653).

**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이 요구되었다.

이에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련 문헌자료를 검토하고 거기에서 도출된 내용들의 의미를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 결과 첫째, ‘제주 교방 및 기생의 현황과 관련된 문헌 기록’에서는 조선중후기 제주 교방의 존재 양상, 기생 현황 및 대략적인 활동 분위기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제주 기생과의 교유 양상을 보여주는 문헌 기록’에서는 제주에 머물렀던 여러 인물들과 기생들과의 교유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 ‘제주 기생의 공연 양상을 보여주는 문헌 기록’에서는 ‘굴림(橘林)에서의 공연’ 양상에 집중하여 그 종류 현장을 재조명해 보았다.

또한 이 글이 제주 교방 및 기생 예술의 문화원형 고증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기획된 바, 문화원형 탐색을 위한 시론적 성격의 논의도 펼쳐보았다. 문헌 자료만으로는 고증이 어려운 부분들을 문학, 음악, 도상 자료 등 다양한 영역의 자료들을 통합하여 살펴봄으로써 제주 교방 및 기생 관련 예술문화의 현대적 조명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제주 교방, 교방 예술, 교방 문화, 기생, 예인(藝人), 문헌자료, 탐라순력도, 문화원형

1. 머리말 - 제주 교방 관련 예술문화 인식의 현주소

현재 제주(濟州)의 예술문화 연구에서 교방이나 기생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제주 기생으로 ‘김만덕’과 같은 인물 정도가 눈에 띄긴 하지만 당대 교방 문화나 예술과는 관련이 적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딱히 주목하여 볼 만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는다. 도서(島嶼)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척박한 삶의 환경 속에서 교방 예술과 같은 문화는 다소 잉여적 문화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현재까지도 제주 교방이나 기생이라는 이름으로 실연(實演)되는 예술문화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을 볼 때 그 보존과 계승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그렇다면 제주에는 교방 및 기생 관련 예술이라고 일컬을 만한 전통이 없는 것인가. 설령 있다하더라도 현재적 상황에서 그 가치를 부여하기는 힘든 것인가.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몇 가지 문헌 자료의 검토를

통해, 제주의 교방 종류와 기생의 공연 양상에 대한 논의를 소략하게나마 펼친 바 있다.¹⁾ 그러나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와 같은 도상(圖像) 자료에 집중하거나 기생들의 몇몇 모습만을 살펴본 것에 그친 감이 없지 않기에, 이 글에서는 앞서의 논의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문헌 기록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제주 교방 및 기생 예술에 대한 이해와 그 학술적·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주 교방이나 그 관련 예술에 대한 문헌적 고증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일례로 제주 교방에 대해 소개하는 기본적인 설명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2000년대에 들어 제주목관아지(濟州牧官衙址)가 새롭게 복원되며 교방이 있던 장소인 ‘교방지(敎坊址)’도 자리 잡게 되었다. 거기에는 제주 교방에 대한 설명이 간략히 서술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방(敎坊)은 관기(官妓)와 악공(樂工)들에게 악기(樂器)를 가르치는 곳이다. 원래 장춘원(藏春院)이었던 것이 1689년(肅宗 15) 이우항(李宇恒) 목사(牧使)에 의해 교방(敎坊)으로 그 이름이 바뀐 듯하다. 악공(樂工)은 관노(官奴) 중에서 선발하였고, 기생(妓生)은 관비(官婢) 중에서 제주와 용모가 있는 자를 택하였다. 『탐라방영총람(耽羅防營總攬)』에 의하면, 교방에는 본기(本妓)와 요녀기(僑女妓) 및 다모(茶母) 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제주목관아지의 교방지 전경

- 제주목관아지 교방지 표지석 설명

위 글은 제주목관아지 교방지에 세워진 표지석의 설명으로 『증보 탐라지』(1953)²⁾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설명에 따르면 제주 교방

1) 강경호, 「제주의 교방 문화와 기생 활동에 대한 문헌 검토-제주 교방·기생의 문화원형 탐색을 위하여」, 『반교어문연구』제40집, 반교어문학회, 2015.

은 원래 ‘장춘원’이었는데 1689년 이우항 목사에 의해 ‘교방’으로 그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다소 수정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704년에 편찬된 이형상(李衡祥)의 『남환박물(南宦博物)』에도 ‘장춘원’이라는 명칭이 나타나기 때문이다.³⁾ 『남환박물』에는 ‘장춘원’과 ‘교방’이라는 명칭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제주 교방의 명칭이 단순히 장춘원에서 교방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두 기관이 공존하였고 또한 그 성격과 역할이 조금은 달랐을 수도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문헌 고증조차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이 제주 교방 문화에 대한 인식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 교방 문화 및 기생 예술에 대한 문헌 고증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서 교방과 관련된 예술문화는 풍부하고 다채롭게 남아 전승되고 있다. 악가무(樂歌舞)가 복합된 종합예술인 정재(呈才)가 바로 장악원이나 교방 소속의 기생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고전시가(古典詩歌)에서 가곡창[시조]을 비롯한 많은 전통의 노래들 역시 주로 기생들의 가창(歌唱)에 의해 연행되었다. 19세기 말~20세기 초 근대전환기에 들어서 나타나는 수많은 잡가와 신민요들은 교방문화권과 그 자장(磁場)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다른 지방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제주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교방 관련 예술을 관변(官邊) 지역의 풍류 혹은 기생들만의 재예 정도로 규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와 관련된 공간을 단순히 상층부의 풍류장, 유희적 공간으로만 볼 수도 없다. 그 시작은 관(官)의 주관으로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그 전승에는 전문 예인들의 연행과 함께 일반 대중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지금까지 남아 계승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실례로 제주에서 널리 불리고 전통 민요로 잘 알려진 수많은 가창유희요, 즉 창민

2) 『증보 탐라지』(『역주 증보탐라지』, 제주문화원, 2005, 270쪽).

장춘원 : 좌위랑(左衛廊)에 있다. 1689년(숙종 15)에 목사 이우항(李宇恒)이 창건하였는데, 기생과 악공이 음악을 익히는 교방(敎坊)으로 삼았다. 악공은 관노(官奴)로 정했는데 정원이 없고, 기생은 관비(官婢) 중에서 제주와 용모 있는 자를 거두어 뽑았다. 지금은 없어졌다.

3) 이형상, 『남환박물』, 이상규·오창명 역주, 푸른역사, 2009, 179쪽 참조.

요(唱民謠)가 바로 이러한 교방 예술문화의 계승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⁴⁾ 제주에 남아있는 많은 전통 예술문화에는 교방과 관련된 예술·문학, 음악, 무용, 연희 등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하는 것이다.

근래에 들어 제주 교방과 기생 관련 예술문화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탐라순력도』에 반영된 제주 교방의 정재 공연과 그 양상에 주목하여 논의한 몇 연구들이 제출되기도 하였고,⁵⁾ 조선 중후기 인물 김춘택(金春澤)이 제주도 유배 시기에 지은 가사(歌辭) <별사미인곡(別思美人曲)>을 기생과의 교류 속에서 살펴 그 향유와 전승 양상을 논의한 연구가 제출된 바 있다.⁶⁾ 또한 창민요와 관련된 논의들⁷⁾에서는 제주도 전역에서 보고되는 창민요가 경·서도(京西道) 잡가 및 민요와의 연관성이 크고 이는 교방 소속 관기(官妓)의 영향 하에서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논의된 바 있다.

이러한 기존 논의들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제주 교방 및 기생 관련 예술문화와 전통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 자료들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 대상으로는 제주를 거쳐 간 많은 문인들의 문헌 기록들에 초점을 맞춰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제주 교방 및 기생 예술문화와 그 문화원형 고찰을 위한 학술적·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그간 제주 전통문화 연구에서 다소 소홀히 여겨졌던 교방 및 기생 예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4) 이에 대해서는 양영자, 「제주지역 가창유희요 고찰」, 『영주어문』12, 영주어문학회, 2006 참조.

5) 장효순,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연희에 관한 연구-무용을 중심으로」, 『탐라순력도연구논총』, 탐라순력도연구회, 2000.; 채형지, 「제주도 무용문화의 소멸적 현안에 대한 인식과 극복을 위한 방안 모색」,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임미선, 「『탐라순력도』의 정재 공연과 주악 장면」, 『장서각』제26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강경호, 앞의 논문, 반교어문학회, 2015 등

6) 강경호, 「김춘택의 작자의식과 <별사미인곡>의 창작, 향유 양상에 대한 일고찰」, 『한국시가연구』35, 한국시가학회, 2013.

7) 양영자, 앞의 논문, 영주어문학회, 2006.; 좌혜경, 「성읍민속마을의 전통과 무형유산의 보존방향」, 『제주도연구』39, 제주학회, 2013.

2. 문헌에 기록된 제주 교방 및 기생 예술의 전통

2.1. 제주 교방 및 기생 현황과 관련된 문헌 기록

제주 교방에 대한 실질적인 문헌 기록은 17세기 중반 이원진(李元鎭)의 『탐라지(耽羅志)』(1653)⁸⁾에 처음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교방에 해당하는 ‘장춘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만 남아있어서 당시 교방에 대한 정보나 기생들의 예술 활동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후 제주를 다녀간 여러 문인들에 의해 남겨진 기록들을 참고로 조선 중후기의 제주 교방의 모습을 기늩해 볼 수 있을 듯하다. 검토 결과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절에서는 제주 교방 및 기생 현황, 활동 양상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이원진의 『탐라지』 이후 50여 년이 지난 기록인 이증(李增)의 『남사일록(南槎日錄)』을 보도록 하겠다. 여기에는 제주 교방의 대략적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

- 12월 초8일, 기사(己巳). 종일 눈이 날리고, 밤에 눈보라가 크게 쳐 제주 객사에서 잤다. 식후에 중군(中軍)이 먼저 가서 5리 거리에 결진을 하였다. 눈을 무릅쓰고 가서 5리 거리의 광양(廣壤)에 도착하여 연무정(演武亭)에 앉아 옷을 고쳐 입고 향축(香祝)을 모시고 주(州)의 객사로 들어갔다. 교생(校生) 50여 명과 기생(妓生) 30여 명이 관덕정(觀德亭) 앞길에 도착하여 맞아 주었고, 판관(判官) 및 정의현감(旌義縣監) 김성구(金聲久), 교양관(敎養官) 정유설(鄭維高)이 도착하여 맞으며 대문 안에서 향축(香祝)하였다. 판관(判官) 이하 여러 장관(將官)이 군례(軍禮)를 행하여 마쳤다.
- 장춘원(藏春院) : 신과원(新果園)에 있다. 기생, 교방, 악공은 관노(官奴)

8) 이원진, 『탐라지』(『역주 탐라지』, 김찬후 외 옮김, 푸른역사, 2002, 93쪽).

장춘원 : 신과원 서쪽에 있는데, 곧 기생이나 악공이 음악을 익히는 곳이다. 악공은 관노 중에서 골라 정원은 없었으며, 교서(敎書)를 받거나 전문(箋文)을 올릴 때 쓰지만 그에 관계되는 예(禮)는 자제하지 않다. 기생은 관비 중에서 제주와 용모가 뛰어난 자를 올려서 정밀하게 골랐다.

에서 골라 정하고 연회에 쓰이며 망궐례(望闕禮)에 진갈 받아 참여한다.
기생은 지금 55명이라고 한다.⁹⁾

위 내용은 1680년 1월, 제주안핵겸순무어사(濟州按覈兼巡撫御史)로 임명되어 제주에 5개월 정도 머물렀던 이증의 『남사일록』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증은 짧은 기간 머물렀으면서도 어사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 이외에 당시 제주 지역에 본 다양한 모습들을 상세히 기록하여 남기고 있다.

첫 번째 기록은 이증이 제주에 들어갔을 때 처음 제주관아로 들어가는 장면을 기록한 것이다. 교생 50여 명 등과 더불어 판관 및 현감 등이 나와 환영하였고 이증은 향축(香祝)을 모시고 객사로 들어갔으며 이어 군례(軍禮)도 함께 행해졌다. 이 자리에는 제주 기생 30여 명도 함께 하였는데, 실제 어떤 연회가 행해졌는지는 기록이 자세하지 않아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인원의 정도 등으로 볼 때, 나름 규모를 갖춘 연례와 그에 따른 연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관아의 건물들을 정리하는 ‘공해(公廨)’ 부분에서는 당시 교방인 ‘장춘원’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장춘원은 신과원(新果園)에 위치하고 있고 기생, 악공 등이 소속되어 있으며 망궐례 등에 참여한다고 되어있다. 당시 소속된 기생의 수는 55명이었으며 악공 등 다른 인원까지 포함한다면 제주 교방의 인원 규모는 상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과 시기에 따라 기생의 정원은 조금씩 달랐던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¹⁰⁾ 아무튼 적지 않은 수의 인원들이 제주 지역 교방에 배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다. 여기서 살펴본 자료들은 비록 단편적인 기록이지만 17세기 후반 제주 교방의 역할, 기생들이 참여하는 연례의 형태, 기생의 규모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 평

9) 이증, 『남사일록』, 김익수 역, 제주문화원, 2001, 41쪽, 113쪽.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문헌 자료들에 대한 해석은 기존에 이미 번역되어 나온 여러 저서들의 내용을 참고하여 인용하였으나, 몇몇 오기(誤記)의 경우에는 필자가 다소 수정했음을 밝힌다.

10) 강경호, 앞의 논문, 반교어문화회, 2015, 69~70쪽 참조.

논의에 따르면, 18세기 후반 『탐라방영총람』에는 제주 교방의 기생이 43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19세기 말 경에는 80여 명이나 된다고 한다. 19세기 말 평양기생이 180여명, 진주교방이 100여명, 함경도 영흥 44명, 황해도 해주 10명, 강원도 원주 20명, 충청도 공주 29명, 전라도 전주 34명, 경상도 대구 66명 등으로 파악되는 것으로 볼 때 제주 기생의 인원 규모도 적지 않은 수임을 알 수 있다.

가할 수 있겠다.

한편 이증은 다양한 시선에서 제주 기생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특히 제주 기생의 재예(才藝)에 대해 평가하는 부분들은 당시 제주 기생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흥미롭게 읽힌다.

● 정월 초3일, 계사(癸巳). 맑으나 바람. 제주객사에서 묵었다. 밤에 판관이 작은 술자리로 와서 권했다. 술이 거나하여 2, 3명을 불러 거문고와 노래로 술을 권하였는데, 모두 늙은 기생으로 음조가 되지를 않았다. 아마도 듣건대, 사또가 잘 섬기는 일에만 급급해서 기녀들에게 바느질 하는 것이나 감독하고 일찍이 음악을 가르치지 않았던 까닭인 것 같다. 늙은 자는 거의 곡조를 잊어버리고 어린 자는 음률을 전수 받아 익히지 못했다고 한다. 이 한 가지 일로도 무인(武人)들이 역시 사사로운 영화에만 사람을 사랑했음을 알 수 있다.

● 정월 19일, 기유(己酉). … 본목(本牧)이 과장연을 차려 못 기녀들이 그들의 기(技)를 연주 했는데 걸모양만 모방하고 시늉만 낼 뿐이었다. 저물 무렵 끝나서 돌아왔다. 판관이 와서 뵈었다.¹¹⁾

이증은 제주 목사나 판관 등이 베푼 소규모 주연(酒宴)에 배석하여 당시의 정황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 제주 기생들의 재예를 언급한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 이증이 평가한 제주 기생들의 실력은 다소 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이증은 제주 기생들의 가창 능력이나 예능(藝能)에 대해 아주 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늙은 기생은 음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어린 기생은 음률을 제대로 전수 받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잘 섬기는 일에만 급급해서 … 일찍이 음악을 가르치지 않았던 까닭인 것 같다”라고 운운하는 것을 보면 이증의 관점에서 기생 본연의 역할은 음률과 재예를 익히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 목사가 열여준 과장연에서도 역시 기녀들의 재예에 대해 “시늉만 낼 뿐”이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모습이 제주 교방 및 기생들의 전체적인 모습들은

11) 이증, 앞의 책, 제주문화원, 2001, 90쪽, 93쪽.

아니었겠지만, 이증의 시선에서는 다른 지역의 교방 및 기생들에 비해 제주 기생들의 제예가 다소 떨어진 것으로 보았던 것 같다. 17세기 말 제주 교방의 현실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기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증감시킨 열 가지 일[增減十事] 중에서

10. 본주(本州)에는 관의 노비 숫자가 많다. 비(婢)들은 모두 기안(妓案)에 들어간다. 다만 지치고 용렬한 약간의 비자(婢子)는 영목에 공수(供須)의 역으로 나누어 세우는데 오래도록 번(番)을 하는 것은 편고(偏苦)인 것이다.

기(妓)는 목사의 수청(隨廳)을 드는 외에 삼읍위(三邑倅) 및 교수(敎授), 아객(衙客), 군관(軍官), 삼학(三學)이 각각 하나의 기(妓)를 가지고 있으면서 함께 거느리며 첩(妾)으로 허용하여 역을 면제해 주니 한가하게 노는데 이들은 바로 그중에서도 교초(翹超)들이었다. 또 영목(營牧)에는 바느질하는 기(妓)가 10여명이 있고 그 나머지는 교방기(敎坊妓)라고 하는데 다모(茶母)와 잡역을 돌아가며 한다.

다 함께 관비이나 사역이 고르지 않아 공적인 일로 헤아려 보면 역시 이루 말할 수 없다. 데리고 기르는 기(妓)에 이르러서는 총애하는 것을 믿고 스스로 건방져서 세력이 굉장하여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한다.

향소(鄉所) 이하는 연고를 따라 부탁하는 것을 사람들 모두가 보통 일도 뇌물을 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간혹가다 정령(政令)에도 폐를 끼치지 않음이 없어서, 세상에 이르기를 ‘제주기(妓)의 권세가 무겁다는 것은 믿어도 거짓말이 아니다’고 한다. 따끔하게 혁파하고 싶어 기적(妓籍)에 들어 있는 가운데 매우 우매한 기예색(技藝色)과 나쁜 짓을 하는 추악한 자 7, 8명을 강등시켜 공자(供子)로 정하였다.

그리고 군관과 삼학의 방에 있는 기(妓)는 다기(茶妓)의 역(役)을 돌러가며 하여 사환(使喚)의 처지에서 할 일을 균역(均役)이 되게 하여 정식으로 시행하였다. 또 학교 노비는 부족하기 때문에 공노비에 속한 4명을 향교에, 3명을 서원에 옮겨 보내 주었다.¹²⁾

이익태(李益泰, 1633~1704)의 『지영록(知瀛錄)』에도 제주 기생에 대한

12) 이익태, 『지영록』, 김익수 역, 제주문화원, 1997, 86쪽 참조.

기록이 남아있다. 이익태는 1694년(숙종 20년) 7월에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1696년 9월까지 약 2년간 공무를 수행하였는데, 『지영록』은 당시의 공무수행 내용과 행적 그리고 제주 관련 기록 등을 남긴 것이다. 앞서 살펴본 이증의 기록 시기와 상당히 근접한 시기로, 이 자료 역시 17세기 말 제주 교방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문헌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이익태는 ‘증감십사(增減十事)’ 중에서 열 번째로 기적(妓籍)의 혁파를 언급한다. 그 내용은 기생들이 교수, 아객, 군관 등의 첩으로 있으면서 그 역(役)은 제대로 행하지 않았고 또한 그 기세가 드센 것을 보고 바로 잡았다는 것이다. 일단 이 기록을 통해 당시 제주 기생들의 대략적 인원 구성에 대해 알 수 있다. 비(婢)는 모두 기안(妓案)에 포함되며 침기(針妓)가 10여 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교방기(敎坊妓)라고 하고 있다. 교방기의 숫자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시기적으로 이증이 기록한 시점과 가까운 것으로 볼 때 아마도 50여 명의 인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눈에 띄는 부분은 제주 기생들의 기세가 높고 기역(妓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당대의 실상이다. 당시 기생들은 하급 관리들의 총애를 얻으며 본분을 넘어 행동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다. 이익태는 이러한 적폐를 혁파하는 것의 일환으로 기적에 들어있는 자들 가운데 재예나 낮은 자들을 공자(供子)로 강등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들은 당시 교방 기생들의 생활환경이나 활동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인데, 다른 문헌 자료들에서도 유사한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다.

● <탁라가를 보충하다[補毛羅歌 並書]> 중에서

서경 읽는 소리 막힘없고 옷차림도 단정해	絃誦洋洋衣帶整
영호남 풍습과 크게 다르지 않네	嶺湖風習不爭多
안타까워라 토속에 사람살이 값 매김 가벼워	可憐土俗輕題品
관기(官妓)가 헛되이 제일품(第一品)이 되었구나	官妓虛當第一科

지방 사람들 말에 첫째 기생, 둘째 관청 사령, 셋째 아전, 넷째 임시직 보졸, 다섯째 향소, 여섯째 선비라는 말이 있다.¹³⁾

13) 남구명, 『국역 우암선생문집』, 김영길 역, 제주교육박물관, 2010, 132쪽.

시기적으로 조금 뒤인 1712년(숙종 38년), 제주관관으로 부임했던 남구명(南九明, 1661~1719)의 문집에는 위와 같은 한시가 남아있다. 그 구절에 ‘관기가 제일품’이라는 내용이 보이고 이에 대한 보주(補註)로 “지방 사람들 말에 첫째는 기생”이라고 덧붙여 놓고 있다. 앞서 이익태의 기록들과 참고해서 보면 18세기 초 기생들의 생활과 활동에 대한 비슷한 분위기의 내용을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 하급 관리들과 결탁하여 삶을 영위하던 기생들의 기세가 당시로는 남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1702년(숙종 28년) 제주목사를 지낸 이형상의 기록에서도 “기생과 창녀들 가운데 조금 넉넉한 사람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어 관서 지방을 방불케 한다.”(『남환박물』)¹⁴⁾고 언급한 것 역시 이와 상통되는 문맥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 지역이지만 기생들의 활동이나 생활은 중앙 못지않은 삶과 활동을 영위해 나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제주의 모든 기생들이 풍요롭고 기세등등한 삶을 영위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18세기 초 제주로 유배 갔던 김춘택(金春澤, 1670~1717)의 기록에서는 “기생은 아주 가난하여 항상 비단 옷감을 걸칠 수가 없다.”(『북헌집』)¹⁵⁾라고 한 것을 보면, 모든 기생들이 화려한 삶을 살아가진 않았던 것 같다. 관찰자의 처지에 따라 주변 인물들의 환경도 달랐을 것인데 아무래도 유배객으로 제주에 머물렀던 김춘택에게 화려한 삶을 누리던 기생들보다는 퇴기 등 일선에서 물러난 기생들과의 교유가 좀 더 이루어졌을 것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제주에는 여러 부류의 기생들이 존재 하였고 활동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겠다.

● <사실을 적다[書事]> 중에서

한라 등근 봉우리 높고 골짜기는 길고	圓嶠摩天洞壑長
신선의 관부(官府) 이 속에 감춰져 있네	神仙官府此間藏
처마마다 광랑(桃榔)나무 잎 그림자 드리우고	簷簷隱暎桃榔葉
뜰마다 굴과 유자 영롱한 향기일세	苑苑玲瓏橘柚香
마소는 그대로 들에 흩어져 새끼 기르고	牛馬尋常郊散子

14) 이형상, 앞의 책, 푸른역사, 2009, 108쪽.

15) 『북헌집(北軒集)-제주기록-』, 김익수 역,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 2005, 114쪽 참조.

촌집은 대개가 돌로 담장 둘렀네
 낮선 땅이라 좋은 흥치 없다고 마시오
아침 저녁 거문고 소리 기생방은 시끄럽네

村閭大抵石圍牆
 殊邦莫道無佳興
 朝暮絃歌鬧後房¹⁶⁾

남구명의 또 다른 한시는 제주의 풍광과 정경들을 보고 느낀 것들을 담박한 표현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화자의 시선은 웅장한 한라산으로부터 깊은 골짜기를 따라 밑으로 옮겨온다. 이어 시선은 마을 집집마다의 처마와 굴, 유자나무에 머물렀고, 한가롭게 들에서 풀을 뜯으며 새끼를 기르는 마소들, 촌집들에 이어진 돌담장 등을 훑어내고 있다. 화자는 한가로운 일상 속에서는 느끼는 낮선 땅에서의 흥치를 만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분위기에서 들려오는 기생방의 거문고 소리는 일상의 풍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다.

이방인의 시선에서 본 제주의 풍경이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라산과 골짜기, 특이한 나무와 과일들, 촌집들을 잇는 돌담장 등은 화자에게 이색적 풍경이었겠지만, 평소 들었던 기생방의 연주 소리가 어우러지면서 제주의 다양한 모습들은 익숙한 장면들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제주의 풍경과 함께 교방의 음악이 함께 언급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제주의 교방과 기생 예술이 당대 낮익은 공간이자 문화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하겠다.

2.2. 제주 기생과의 교유 양상을 보여주는 문헌 기록

다음으로 살펴볼 문헌 자료는 제주를 방문했던 여러 문인들과 기생들과의 교유 양상을 보여주는 내용들이다. 기생은 기본적으로 교방에 소속되어 다양한 기억(妓役)을 행하게 되는데, 그 중 음악과 재예를 수련하여 여러 연례에 참여·연행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듯 공무로서만 기억(妓業)을 행했던 것은 아니었고 개인적 차원에서 여러 인물들과 교유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에 머문 여러 인물들의 기록에서 이러한 기생들과의 교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16) 남구명, 앞의 책, 제주교육박물관, 2010, 123~124쪽 참조.

서는 그러한 양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10월 20일에 이르러 별도포에서 떠나려고 정박한 후에도 또 달려와 연회를 마련하고 전별해 주었다. 섬 안의 관리와 백성들이 술을 들고 와 전별하는 자가 꽤나 많았다. [그 중에는 기녀(妓女) 해운(海雲), 온향(溫香), 노향(老香)이 정성을 다하여 술을 놓고 노래로 흥을 돋우며 차마 헤어지지 못해 하기에] 모두 시로 보답하였다.

● <송별연에서 기녀에게 줌[祖席贈歌妓]>

검은 나귀에 술 싣고 홀로 찾아와	靑驢載酒獨相尋
다정한 뜻 은근히 나그네 마음 위로하네	情意慇懃慰客心
두 줄기 흘리는 눈물 하 많은 한	別淚雙行兼百恨
이별가 한 곡조 천금이네	離歌一曲直千金
생전에 다만 꽃이 아니었을까	生前祇是思花貌
떠난 뒤 옥 같은 소리 못 들으리니	去後那堪隔玉音
오늘 나그네의 감회 오로지 사무쳐	今日羈懷偏感慨
흰 구름 안개 속 수심저 읊고 있네.	白雲煙景入愁吟 ¹⁷⁾

위 인용문들은 제주에 유배 왔던 왕족, 인성군(仁城君) 공(珙)의 3남인 이견(李健, 1614~1662)의 『규창집(葵窓集)』에서 가져온 것이다. 인성군은 진도 유배 시 자진(自盡)하여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견을 비롯한 인성군의 가족들은 모두 1628년부터 제주에 유배지 생활을 하였는데 1635년 9월, 이견은 형인 길(吉), 역(億)과 함께 강원도 양양으로 유배지를 옮기게 된다.

첫 번째 내용은 제주를 떠나기 전 제주 사람들이 마련해준 전별회의 모습을 서술한 것이다. 제주 사람들은 떠나는 이견 가족들을 위해 작은 연회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거기에는 몇몇 기생들—해운, 온향, 노향—도 참여하여 노래로써 흥을 돋운 것으로 나와 있다.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이견은 시를 지었으며 그 시가 바로 이어서 인용한 작품이다. 어찌 보면 죄인의 신분으로 제주에 머문 유배객일 뿐인데 인근의 제주 사람들은 이견과 그 가족들을

17) 이견, 『규창집』, 김익수 역, 제주문화원, 2010, 277쪽, 373쪽.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약 7여 년간의 교유가 정리되는 마무리 자리에서 전별회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이별의 아쉬움이 시에는 한껏 드러나고 있다.

비록 유배인의 신분이었지만 이견은 제주에서도 많은 문학 창작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와중에도 제주 사람들과의 교유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기생들과의 관계도 친밀하게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소행정기(素行亭記)」 중에서

관아가 끝나고 관리들이 물러가면, 혼자 무료하게 앉아 있다가 지팡이를
짚고 거닐며 정자 위에서 쉬었다. 때마침 물위에 뜨고 여러 가지 꽃들이 향기
를 뿜는데 동쪽 산마루에 달이 떠서 맑게 빛나며 정자에 가득했다.
거문고 타는 아이에게 거문고를 타게 하고 가기(歌妓)에게 창(唱)을 부르게
하면서, 커다란 술잔을 잡고 몇 잔을 마시면 그냥 취해 눕게 되어 오래도록
어느 곳에 편안히 있는 줄도 모르고, 또한 이 몸이 절해의 밖에 와 있는 줄도
모르게 된다. 이것이 어찌 그 지위를 깨끗이 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겠는가.

기해(己亥, 효종10년 1659년) 여름 연안(延安) 이괴(李繪) 씀.¹⁸⁾

● <설날 그믐밤[除夜]>

세월은 잠시도 머무르려 않나니	光陰未肯小時留
<u>먼 타향에 앉아 묵은해가 저무는 걸 맞추나</u>	坐見天涯歲已過
두려워 초로(初老)의 나이 오히려 반 식경인 듯	畏老中身猶半餉
고향을 그리나니 하루가 곧 삼년인 듯	思鄉一日卽三秋
밤은 깊는데 촛불 커 어둠을 밝히지만	更深蠟炬明還
눈이 피로해 문서들 밀어 놓고 거두지 않네	目倦文書散不收
<u>쓸쓸히 외로운 마음 토로할 곳조차 없으니</u>	寂寞心懷無處寫
<u>기생아이 불러 장구(藏鉤) 놀이나 하여 보네</u>	試呼兒妓戲藏鉤 ¹⁹⁾

여기 내용들은 앞서 살펴보았던 이익태의 『지영록』과 남구명의 『우암선

18) 이익태, 앞의 책, 제주문화원, 1997, 73~74쪽.

19) 남구명, 앞의 책, 제주교육박물관, 2010, 127쪽.

생문집』에 실린 기록들이다. 『지영록』에 수록된 <소행정기>는 이익태보다 앞서 제주목사를 지낸 이괴(李檉)²⁰⁾의 글을 옮긴 것으로, 이괴는 1658년 4월 제주목사에 부임한 인물이다.

두 인물은 모두 공무를 수행하는 관리로서 제주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같다. 또한 위 인용한 글들은 공무 후 개인적 시간을 가지면서 느낀 감회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두 기생들과의 개인적 차원의 교유 양상을 보이는 기록들로 주변에 가기(歌妓) 혹은 예기(藝妓)를 두어 음악을 향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익태의 경우 공무 후 갖는 휴식 시간에 가기(歌妓) 등을 통해 음악을 향유하고 있고, 남구명 역시 동기(童妓)를 불러 장구를 연주하게 하면서 연회를 즐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 모두 공무로 떠나면 제주에 부임한 만큼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로움을 달래고 무료함을 해소하는 데에는 술과 음악을 즐기는 것이 제격이었을 것이다. 이렇듯 그리움의 해소를 위해 기생들과 교유하고 음악을 향유하는 것은 당대 제주에 거주했던 사대부들의 한 방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남구명의 한시 작품을 더 살펴보도록 하자.

- 홀로 틀어박혀 쓸쓸함을 삭이지 못하니, 젊은 기생(妓生)들에게 각기 본도(本島) 민간에서 불리는 노래를 뽑아 올리게 하고, 근체시(近體詩) 다 시트 수를 짓다.

<임 마중 노래[迎郎曲]>

늘상 별도보에 나가 살피네	三時出望別刀堡
떼지어 상선들은 어느 포구에 드는가	簇簇商帆何處浦
서로 부르며 화장할 것을 최촉할 때	同類相呼促理粧
노 소리 동쪽으로 조천포로 들어가네	櫓聲東入朝天雨

<기생집 노래[娼樓曲]> 중 세 번째 수

밤이 오래도록 거문고 소리 끊이지 않네	夜久絃歌謾轉促
-----------------------	---------

20) ‘이괴(李檉, 1607~1666)’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인물로, 연안이씨 족보에 ‘이괴’로 되어 있다.(김찬홍 편저, 『제주사인명사전』, 제주문화원, 2002, 592쪽 참조)

촛불은 꽃처럼 푸른 비단 조롱에서 깜박이고	燭華明滅紗籠綠
너의 집엔 따로 잠 못 드는 사람 있으니	儂家別有不眠人
청하노니 잔치자리에 파연곡을 올리려마	請奏筵前罷宴曲 ²¹⁾

남구명은 여러 한시를 통해 제주 기생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아내었다. 앞서 본 작품처럼 동기(童妓)들의 놀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굴 과수원에 서의 풍류 현장을 여러 시에 걸쳐 묘사하기도 하였다.²²⁾ 또한 기생들이 말타는 모습을 현실감 있게 그리기도 하였다.²³⁾ 그러한 작품들 중에는 인용한 작품들처럼 기생들과의 교유를 통해 제주 민간에서 불리는 노래들을 감상하고 시로 옮긴 작품들도 남겨져 있다.

남구명은 젊은 기생들을 시켜 제주 민간에서 불리는 노래들을 뽑아 부르게 하고 그 자리에서 들은 노래 중 몇 곡을 골라 근체시로 짓는다. 그 제목이 <영랑곡(迎郞曲)>, <송랑곡(送郞曲)>, <창루곡(娼樓曲)>으로 이중 <영랑곡>과 <송랑곡>은 각 한 수씩, <창루곡>은 세 수로 지어 남겨놓았다. 이 노래들은 아마도 제주의 여항·시정에서 불린 기생들의 노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절해고도(絶海孤島)에서 쓸쓸함을 달래는 데는 기생들의 노래만한 것이 없었던 것 같다. 앞서 살펴본 기록에서도 음악을 통해 마음을 가다듬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여기에서도 기생들과의 음악적 교유를 통해 외롭고 쓸쓸한 심사를 달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남구명이 들은 노래들은 모두 여인들이 입을 그리워하는 정서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여인이 입을 그리워하는 정서에 빗대어 화자 자신의 마음을 완곡하게 드러내는 방식은 전통적 수사 방식이다. 입을 그리워하는 노래 속 화자의 모습과 쓸쓸한 심사를 달래기 위해 노래를 듣는 자신의 모습은 일맥상통하는 부분

21) 남구명, 앞의 책, 제주교육박물관, 2010, 164~165쪽 참조.

22) 이에 대해서는 ‘3) 제주 기생의 공연 양상을 보여주는 문헌 기록’에서 상술할 것이다.

23) “가녀린 허리 절끈 묶고 가볍게 걸터앉아 / 먼 길로 달려 들어가면 눈에 가물거려도 / 비녀 기울지 않고 깃털 모자도 단정해 / 몸은 마치 봉(鵬)새 후려치려 재빨리 쫓는가 싶네”(纖腰約束跨輕鞍 馳入長途目液寒 殷股不傾氎帽整 卻疑身逐快鵬搏). 남구명, 앞의 책, 제주교육박물관, 2010, 171쪽.

제주 기생의 말 달리는 재예에 대해서는 강경호, 앞의 논문, 반교어문학회, 2015, 79~83쪽 참조.

이 있다. 본래는 흥을 돋우기 위해 불렀던 이 노래들이 남구명 자신에게는 유사한 정서로 와 닿았기에 이렇게 한시로 남기며 기록해 놓았다.

- 1898년 4월 23일(초3일 병진(丙辰)) 흐리고 큰 바람, 조금 비 뿌렸다. 홍정의(洪旌義), 송대정(宋大靜), 이희석(李喜奭), 홍서순(洪瑞順)이 왔다. 앞집에 사는 퇴기(退妓) 취운(翠雲)이가 와서 만났다.
- 1898년 5월 4일(14일 정묘(丁卯)) 맑고 화창함
창룡선이 동래에서 지나다가 정박했다. …중략… 모두 내 집으로 돌아 오다가 서양천, 김순화가 사는 집에 모여 갔더니 규원(葵園), 황소운(黃筱雲)이 있는데, 퇴기 5, 6명이 역시 있어서, 같이 더불어 놀고 노래부르다가 헤어졌다.
- 1899년 8월 11일(7월 초6일 신해(辛亥)) 서풍이 크게 일었다. 낮 사이에 소나기가 내렸다. 낮에 대정(大靜) 퇴기가 노래를 잘 한다고 하여 여러 사람이 들으러 왔다.
- 1900년 5월 6일(초9일 경진(庚辰)) 흐림. 보슬비 내리더니 곧 지나갔다. …중략… 양천(養泉), 규원(葵園), 수산(繡山), 우석(友石) 이철우(李哲宇), 하산(霞山) 정현구(鄭顯龜), 주인 및 연농(研農) 홍종시(洪鍾時)가 모여와서 술추렴을 해서 마셨다. 운성(雲成)은 통소를 불고 재성(再成) 이는 곡조 따라 창을 하는데, 또 6, 7명의 기생들이 와서 보다가 마당 가운데서 같이 마주서서 춤을 추게 되니, 닭 울 때가 되어서야 헤어졌다.²⁴⁾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들은 비교적 후대인 근대전환기 시기의 자료로,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의 『속음청사(續陰晴史)』에 기록된 내용들이다. 『속음청사』는 조선 말기의 온건개화파 관료인 김윤식이 1887년 5월 29일부터 세상을 떠나기 20일 전인 1921년 12월 31일까지 35년간의 일기를 기록한 책이다. 이 중 제8권과 9권 및 10권의 앞부분은 1897년 12월 21일부터 1901년 7월 16일까지 4년 반 정도의 제주 유배 생활을 기록하고 있다.

24) 김윤식, 『속음청사』, 김익수 역, 제주문화원, 1996, 76쪽, 77~78쪽, 147쪽, 176쪽.
여기 인용한 문헌 자료들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각각의 기록 연도를 함께 표기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유배객의 처지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여유로운 환경에서 살아갔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보방(保放) 조치로 인해 거주에 제한은 있었지만 지인들과의 모임을 갖기에는 큰 무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⁵⁾ 그 중 기생들과의 교유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들이 여럿 확인된다. 퇴기 취운(翠雲)을 만난다든가 여러 지인들과 퇴기 5~6인과 더불어 노래를 부르고, 또는 노래를 들으러 가기도 하고, 술추렴을 해 마시면서 악기를 연주하며 연회를 즐기는 등 여느 풍류장의 모습과 다름없는 모습을 재현하기도 한다. 유배인의 신분이지만 나름의 풍류를 즐기는 장면들이 인상적인데 당시의 관기들보다는 일선에서 물러난 퇴기들과의 교유 양상이 나타난다는 점 또한 흥미롭게 살펴볼 만한 부분이다.

이미 기존 논의에서도 소개된 바 있어²⁶⁾ 이 글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여러 인물들의 행적에서 기생들과 교유하며 풍류를 즐겼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도로 가는 배에서 악공, 기생과 더불어 음악을 즐기는가 하면[임제(林梯)]²⁷⁾ 제주 기생들의 말 타는 솜씨에 감탄하며 구경하기도 한다.[임제, 신광수(申光洙)]²⁸⁾ 또한 가사 작품을 창작하여 기생들에게 전하는가 하면[김춘택]²⁹⁾ 기생이 부르는 가사를 들으며 감회에 젖기도 한다.[신광수, 임징하(任徵夏)]³⁰⁾ 제주에 방문했던 다양한 부류의 인물들은 나름 각자의 방식으로 제주 기생과 교유하며 풍류 문화를 즐겼던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풍류 문화는 조선후기 제주 예술의 한 축을 담당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연구와 고증은 아직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유 양상과 거기에서 이루어진 예술문화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

25) 김윤식의 유배 당시의 처지와 활동에 대해서는 김새미오의 「제주유배시사 橘會 연구」(『한국한문학연구』 제57집, 한국학문학회, 2015, 479~483쪽) 참조.

26) 강경호, 앞의 논문, 반교어문학회, 2015 참조.

27) 임제, 『남명소승(南溟小乘)』, 홍기표 역, 『역주 제주고기문집(濟州古記文集)』, 제주문화원, 2007, 59쪽.

28) 임제, 위의 책, 제주문화원, 2007, 57~58쪽.
신광수, 『탐라록』, 홍기표 역, 『역주 제주고기문집(濟州古記文集)』, 제주문화원, 2007, 224쪽.

29) 김춘택, 앞의 책,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 2005, 395쪽.

30) 임징하, 『서재집(西齋集)』, 김익수 역,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 2004, 58~59쪽.
신광수, 위의 책, 제주문화원, 2007, 276쪽.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3. 제주 기생의 공연 양상을 보여주는 문헌 기록

제주 교방 관련 문헌 내용들 중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들은 기생들의 연희와 관련된 기록들일 것이다. 물론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긴 보다는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당대 교방 예술 연행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한 공연의 모습으로는 ‘용연(龍淵)에서의 선상(船上) 풍류’, ‘굴림(橘林)에서의 공연’, ‘관아에서 이루어진 정재(呈才) 공연’, ‘양로연(養老宴)’, ‘성악(聲樂) 공연’, ‘말 타기 연희’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이미 기존 논의에서도 상당부분 다뤄진 바 있기에³¹⁾ 여기에서는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는 ‘굴림에서의 공연’과 관련된 문헌 자료에 집중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 <북과원(北果園)에서 놀 때 목사에게 드려 화답을 구하다[遊北果園 呈牧伯求和]>

태양은 한낮 맑은 하늘 아래 빛나고	廳輪當午下清霄
미녀 무리 보요(步搖) 이어 소리도 곱구나	玉女千羣戴步搖
붉은 굴과 등자들 더미로 쌓여 있고	紫橘紅橙堆釘飯
백운가 황죽가 가락 생황과 통소에 섞였네	白雲黃竹間笙簫
선옹(仙翁)들 바둑 두고 관 거두기에 바쁜데	仙翁賭弈忙收局
동자(童子)는 도끼 들고 나무하기 잊었네	童子扶柯忽罷樵
세상에 승지(勝地)의 일 소문날까 두려워	卻怕人間傳勝事
사나운 악어를 앞바다에서 놀게 하였네	故教鯨鱓戲前潮

- <남과원(南果園)에서 놀며 다시 앞 시의 운에 따르다[遊南果園 更步前韻]>

겨울날 따뜻이 붉게 갠 하늘인데	冬日暄暄霽絳霄
남과원 지나다 억지로 부름 받았네	偶過南苑強招搖
한나라 궁전에서 곱다랗게 악공이 현묘한 춤을 추듯	輕盈漢殿伶玄舞

31) 앞의 각주 5~7번의 논의들을 참고할 수 있다.

진나라 누각 널따란데 옥피리 소리 넘치듯	縹緲秦樓弄玉簫
가까운 곳 경치는 굴나무 유자나무 품었고	近郭風煙藏橘柚
숲 너머 낚시꾼과 나무꾼 노래 피리 소리 들리네	隔林歌吹起漁樵
노느라 돌아갈 시각 늦어도 알아채지 못하더니	留連不覺歸來晚
저기 평평한 모래톱에 저녁 물결 올라오네	咫尺平沙上暮潮

- <목사가 서울로 돌아가는 것을 송별하다[送別牧使歸京]> 중에서
- | | |
|------------------------------|------------------------|
| 푸른 휘장 붉은 깃발 해를 가려 나부끼며 | 翠蓋紅幢蔽日翻 |
| 매번 좋은 경치 만나면 문득 수레 멈추었지 | 每逢佳處輒停軒 |
| 안목은 유구(琉球)의 땅 크고 작은 일을 꿰뚫었고 | 眼通大小琉球國 |
| 풍악은 여기 저기 굴유원(橘柚園)에서 울려퍼졌네 | 樂奏東南橘柚園 |
| 어부가 작살 거두며 굴과 바닷게 줄어들고 | 漁戶挺杈蠔蠃窟 |
| 사냥꾼이 화살 쏘니 사슴 노루 비명일세 | 獵丁彈矢鹿獐喧 |
| 보기 드문 경관 풍물 심목(心目)에 가득 들어찼으니 | 奇觀怪觀供心目 |
| 승지(勝地)를 찾아 놀았던 일 또한 성은이었네 | 勝地追遊亦聖恩 ³²⁾ |

위 한시들은 남구명의 작품들로 제주관관으로 부임한 18세기 초의 기록이다. 첫 번째 시는 북과원에서, 두 번째 시는 남과원에서 이루어진 연회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으며, 세 번째 시는 제주 목사의 송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 중에는 굴유원에서 이루어졌던 풍악 장면을 적어놓고 있다. 짐작되듯이 이 작품들은 모두 굴 과수원에서 이루어진 공연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의 공연과 연회는 내용 곳곳에서 제주 목사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즐긴 연회가 아니라 교방 기생과 악공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비교적 규모 있는 수준의 공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탐라순력도』의 <굴림풍악(橘林風樂)>과 같은 굴림에서의 풍악 장면을 이리한 한시 작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탐라순력도』를 참고해 보면 <굴림풍악>은 ‘감귤봉진(柑橘封進)’, 즉 감귤 진상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진행되는 연례(年例)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³³⁾

32) 남구명, 앞의 책, 제주교육박물관, 2010, 109~110쪽, 110쪽, 143쪽.



『탐라순력도』의 〈굴림풍악〉



〈굴림풍악〉 부분도1.(중앙)
굴림에서의 풍악 장면



〈굴림풍악〉 부분도2.(우측)
교방(敎坊)

그러나 위 한시들을 보면 굴림에서의 풍류가 연례의 차원에서만 행해지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제목에 “유북과원(遊北果園)”과 같은 내용을 적어둔 것을 통해 볼 때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연회가 즐겼던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송별연과 같은 비공식적 행사도 굴림에서 행해졌던 것으로

33) 『탐라순력도』(영인본), 그림해설 김동전, 서문해설 고창석, 제주시, 1994, 26~29쪽 참조.

볼 수 있겠다. 다시 말해, 굴림에서의 풍악과 연회는 공무적 차원에서 연례 행사로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당시 목사, 관관 등의 사대부들이 일상적으로 즐겼던 풍류의 형태였으며, 굴 과원은 그러한 풍류가 이루어졌던 대표적인 공간이었다.

북과원 시의 “미녀 무리 보요(步搖) 이어 소리도 굿구나”라는 구절은 기생들의 춤 공연과 성악 공연을 보고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남과원 시의 악공에 대한 묘사는 굴림에서의 풍악의 작지 않은 규모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풍악은 여기 저기 굴유원(橘柚園)에서 울려퍼졌네”라는 표현을 통해 이 같은 굴림 풍류가 당시 성행했음을 알게 해준다.

굴림에서의 풍류가 어렵지 않게 열릴 수 있었던 까닭에는 위치적으로 교방이 굴 과원에 바로 붙어있었기 가능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원진의 『탐라지』(1653)이나 이후 이중의 『남사일록』에 교방[장춘원]의 위치를 신과원(新果園) 옆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 『탐라순력도』에의 그림에서도 과원과 교방이 바로 붙어 위치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위 부분도2 참조]

이러한 굴림에서의 풍류는 단순히 관가를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다음의 기록은 굴림에서의 풍류가 비록 그 규모와 성격의 차이는 있지만 관가를 넘어 저변에까지 퍼져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 1898년 4월 28일(초8일 신유(辛酉)) 맑고 화창함.

오늘은 굴원(橘園) 두 번째 모임이다. 다만 국, 밥만 차렸다. 모인 사람은 삼은(三隱), 아석(我石), 양천(養泉), 규원(葵園), 하산(霞山), 김진사(金進士) 병윤(炳潤), 김주사(金主事) 병하(秉夏)이다. 당운(塘雲)은 병으로 먼저 가고, 한주부(韓主簿), 송대정(宋大靜), 김여산(金礪山) 여러 사람이 왔다. 제주 행수 노기(老妓) 등이 와서 만났다. 어린 기생 초엽이가 와서 옷을 주었다.

● 1899년 10월 25일(21일 병인(丙寅)) 맑음 …중략…

주인이 굴밭 가운데 자리를 마련하고 술과 안주를 내와 먹었다.³⁴⁾

34) 김윤식, 앞의 책, 제주문화원, 1996, 76쪽, 158쪽.

위 기록은 앞서 한번 살펴본 김윤식의 『속음청사』의 내용이다. 주지하듯 김윤식은 1897년부터 1901년까지 제주에서 유배 생활을 하였다. 유배인의 신분이었지만 그 활동에 비교적 여유가 있었음을 앞서 언급한 바 있었는데, 위 내용을 통해서도 조선 최말기의 유배 공간의 분위기는 다소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김윤식은 일기 곳곳에서 나름 지인들과 즐겼던 풍류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굴림에서 이루어졌던 모습에 대해서도 남기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김윤식은 제주 유배 온 지인들과 함께 시회(詩會)를 결성하여 그 모임 ‘굴림아집(橋林雅集)’이라고 하였다.³⁵⁾ 굴림아집은 다년간에 걸쳐 모임이 이루어졌는데, 위 첫 번째 인용 글은 그 두 번째 모임에 대해 서술한 것이다.

여기에서의 굴림 모임은 앞서 살펴본 굴림에서의 풍류와는 다른 형태의 모임이다. 관가의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교방 기생과 악공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규모 있는 ‘굴림풍악’과는 그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 그러나 굴원에서 가진 시회에 행수 노기와 동기 등이 찾아와 함께 했다는 기록도 있는 것을 보면 단순한 시회의 성격만을 띤 모임은 아니었던 것 같다. 앞서 보았던 김윤식의 기록에서처럼 기생들과 함께 노래와 춤을 곁들인 풍류의 장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인용에서는 조출한 자리이지만 지인들과의 술자리의 모습도 나타난다. 굴원에서 지인들과 시회를 갖기도 하고 풍류를 즐기기도 하며 유배의 고충을 달랠 것으로 보인다. 굴림이라는 공간이 각자의 처지와 환경에 따라 다양한 교류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굴림에서의 풍류는 다른 지방과는 변별된 제주 지역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던 독특한 모습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기존에는 굴림에서의 풍류 공연이 『탐라순력도』의 <굴림풍악>과 같은 그림으로만 알려져 있어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대 제주의 다양한 교류와 풍류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었다는 점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제주 교방 풍류의 또 다른 현장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35) 이에 대해서는 김새미오, 앞의 논문, 한국한문학회, 2015, 487~494쪽 참조.

3. 제주 교방 관련 예술의 문화원형 탐색을 위한 시론

이 글은 제주 교방 및 기생 관련 예술문화의 전통을 살펴보고 그 문화원형 고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의도되었다. 이를 위해 제주 교방 관련 여러 문헌 자료들에 대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교방 및 기생 예술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 결과 조선 중후기 제주 교방과 기생의 현황과 활동상, 여러 인물들과 기생들의 교유 양상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중에는 ‘굴림에서의 풍류’와 같은 의미 있는 장면들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교방 관련 예술 중 현재까지 제대로 계승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용연 선상 음악회’ 정도가 꾸준히 열리고 있는 정도이며, 이 글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제주 창민요의 경우는 몇몇 민속공연을 통해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이다. 용연 선상 음악회 역시 그 전통 본연의 모습을 잘 살리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근래에 들어 제주 교방 예술과 그 문화, 기생·예인들의 공연 양상에 대한 논의가 간헐적으로나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지 못하였고 각각의 연구들이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다 보니, 제주 교방 예술사 및 문화사의 전체적인 윤곽을 제대로 그려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본 논문의 성과를 넘어 문헌 자료의 고증에서부터 보다 폭넓은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문학, 무용, 음악, 민속 등 학문 간의 울타리를 넘어 통합적 관점에서 제주 교방 및 기생 관련 예술과 문화를 바라보는 입체적 시각이 요구된다 하겠다. 여러 분야의 학술적 고민들이 상호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고증과 조명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시론적 성격에 머무르겠지만, 문헌 자료 및 문학, 음악, 미술 자료 등 다양한 영역의 자료들을 통합하여 제주 교방 및 기생 관련 예술 문화의 현대적 조명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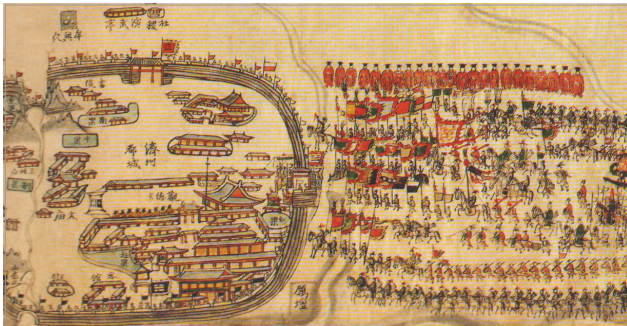
【문헌 자료】이증의 『남사일록』

12월 초8일, 기사(己巳). 중일 눈이 날리고, 밤에 눈보라가 크게 쳐 제주객사에서 잤다. 식후에 중군(中軍)이 먼저 가서 5리 거리에 결진을 하였다. 눈을 무릅쓰고 가서 5리 거리의 광양(廣壤)에 도착하여 연무정(演武亭)에 앉아 옷을 고쳐 입고 향축(香祝)을 모시고 주(州)의 객사로 들어갔다. 교생(校生) 50여 명과 기생(妓生) 30여 명이 관덕정(觀德亭) 앞길에 도착하여 맞아 주었고, 판관(判官) 및 정의현감(旌義縣監) 김성구(金聲久), 교양관(敎養官) 정유설(鄭維壽)이 도착하여 맞으며 대문 안에서 향축(香祝)하였다. 판관(判官) 이하 여러 장관(將官)이 군례(軍禮)를 행하여 마쳤다.³⁶⁾

【문학 자료】〈매비장전〉

신관 사또 구관 사또 인교(印交)하고, 새 사또 도입차로 들어간다. …(중략)… 앵무 같은 고운 기생 연치(年齒) 맞춰 골라 뽑아 물색으로 단장하여 동문(東門) 안 대도상(大道上)으로 쌍쌍이 늘어서서, 청도(靑道) 한 쌍, 순시(巡視) 두 쌍 오색 기치(五色旗幟) 찬란하고 …(중략)… 영무정(永舞亭) 바라보고 산지(山芝)내 얼핏 건너 북수각(北水閣) 지나 놓고 칠성(七星)골 너른 길로 관덕정(觀德亭) 돌아들 제 권마성(勸馬聲)은 새들하고 취타성(吹打聲)은 동지(動地)로다. 인민(人民)들은 갈담(渴談)하고 초목조차 굽히는 듯. 전알전에 사배(四拜)하고 만경루(萬景樓) 도림(到臨)할 제, 아이 · 남녀 노소 없이 신관 사또 구경이다.³⁷⁾

【도상 자료】『탐라순력도』 <제주조점(濟州操點)>



38)

36) 이증, 앞의 책, 제주문화원, 2001, 41쪽.

37) 국제문화관본, 정병욱 교주, 『매비장전 · 옹고집전』, 신구문화사, 1974, 40~43쪽.

[음악 자료] 창민요 <관덕정 앞>(일명 신목사타령)

관덕정 문앞에 영리방(營吏房) 걸음을 걸어라/아기종 아장거려서 신목사 후리
레 나간다

지화자 좋을소 대명당 허리로구나/아기종 아장거려서 신목사 후리레 나간다
가면은 가고 말면은 말았지/찢신을 신고서 에리화 씨집을 갈거나

지화자 좋을소 대명당 허리로구나/아기종 아장거려서 신목사 후리레 나간다
...(하략)...39)

[문헌 자료]는 이 글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는 이증의 『남사일록』의 내용이다. 1680년 안핵어사 겸 순무어사의 임무를 띠고 제주를 방문한 이증은 12월 초8일 연무정을 거쳐 관덕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위 내용은 어사로써 부임하는 장면을 서술한 것이다.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화북포구로 제주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관관들과 현감들을 보는 자리에 교생 50여 명과 기생 30여 명이 관덕정 앞에서 도열하여 맞이해 주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참여한 인원으로 볼 때는 비교적 규모 있는 행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짧은 기록에서 17세기 말 당시 제주 교방의 역할이라든가 기생의 연례나 연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짐작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문학 자료]와 [도상 자료], [음악 자료] 등을 함께 살펴본다면 이 장면은 새롭게 조명될 수 있다. 먼저 참고하여 살펴볼 자료는 소설 <배비장전>이다. 제주를 배경으로 한 판소리계 소설 <배비장전>에는 신관 사또 부임 장면이 다채롭게 묘사되어 있다. 화려하게 단장하여 도열한 기생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관덕정으로 들어가는 취타대의 모습도 생동감 있게 그려지고 있다. 거기에 신관 사또 행차를 구경하러 온 많은 사람들까지, 왁자지껄한 주변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느낌이다.

그렇다면 이때 기생들과 악공들에 의해 연행된 연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실제적인 장면을 조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탐라순력도』의 <제주조점(濟州操點)>을 통해 그 단면을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잘 알려

38) <제주조점> 부분도, 『탐라순력도』(영인본), 제주시, 1994.

39) 『한국구비문학대계』 9집, 3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517쪽.

져 있듯이 『탐라순력도』는 이형상이 1702년에 제주목사 겸 병마수군절제사에 부임한 후 제주의 고을들을 순력(巡歷)하면서 거행한 여러 행사와 방어의 실태, 풍속, 산물 등 기록한 화첩이다. 인용한 <제주조점>은 군사들의 조련과 제반사항을 점검한 모습들이지만 [문헌 자료]나 [문학 자료]에서 살펴본 몇몇 인상적인 장면들을 간취해낼 수 있다. 취타대의 모습이라든가, 문관들의 도열 장면[右上], 관덕정 앞에 기생들의 도열 장면[左 중앙]은 행차 장면을 그려보는데 부족함이 없다.

제주 창민요 <관덕정 앞>(일명 신목사타령)은 당시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해학적으로 풀어낸 노래이다. 실제로 신목사 부임 시에 이 노래가 불렸기보다는 그때의 기생들의 모습과 장면을 노래한 것이 지금까지 노래로 전승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아장거리며’ 신목사 앞으로 나서는 기생들의 모습은 <배비장전>에서 ‘단장하여 큰길가에 쌍쌍이 늘어선’ 모습을 보다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다양한 자료들을 재구성하여 신목사 또는 어사의 행차 장면을 재해석해 보았고 또한 그러한 행차 연례에서 실현되었을 제주 교방 예술의 한 단면을 그려내 보고자 하였다. 물론 구체적인 장면 하나하나를 조명해내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제주 교방 예술의 단편들을 여러 자료들을 통해 조합하고 재구성해 봄으로써 보다 입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모습으로 재현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자료들[텍스트]에 대한 학문간 연계와 통합적 고증의 시도는 제주 교방 예술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학술적·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며, 그 문화원형을 복원하고 재정립하는 현대적 조명 작업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행차 장면’ 이외에도 많은 제주 교방 관련 연행물들이 현대적 재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굴림에서의 풍악’은 다른 지역과는 변별된 제주 교방 예술만의 독특한 풍류 문화라는 점에서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으며, ‘말타기 연회’ 역시 몇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제주 기생들의 전통 연행물이었다는 점에서 그 문화원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탐라순력도』에 보이는 <포구락(抛毬樂)>, <선유락(船遊樂)>과 같은 정재 공연, 선상(船上) 음악 공연, 가곡창과 가사창와 같은 전통 성악

공연 등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들에 대한 면밀한 고증과 함께 그 문화원형에 대한 탐구가 앞으로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최근까지 제주의 전통문화 연구에서 교방과 기생, 그 관련 예술 및 문화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대상이었다. 제주만의 전통 문화가 중시되는 문화적 환경에서 교방 및 기생 관련 예술이나 문화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졌다고 볼 수 있고, 근대전환기를 거치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거의 단절(斷絶)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 교방 관련 예술문화는 다양한 양태로 존재하고 있었고 교방 문화에서 파생된 풍류 문화는 조선 후기 제주 예술의 한 축을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그 문화원형의 탐색을 위해 제주 교방 및 기생 예술문화 관련 문헌자료를 검토하고 거기에서 도출된 내용들의 의미를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 결과 ‘제주 교방 및 기생의 현황과 관련된 문헌 기록’, ‘제주 기생과의 교유 양상을 보여주는 문헌 기록’, ‘제주 기생의 공연 양상을 보여주는 문헌 기록’을 통해 그 실제적 양상과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거칠게나마 문화원형 탐색을 위한 시론적 성격의 논의도 펼쳐보았다.

제주 교방 및 기생의 연희물들은 오랜 기간 지속됐던 제주 교방의 주된 연행 종목이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예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이 연희물들은 교방문화권의 권역에서 향유·파생되며 제주 전통 예술 형성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주의 교방 예술과 기생들의 모습은 여러 문헌 자료들에 상당히 단편적이고 파편적으로 남아있다. 이 기록들만으로 그 문화원형을 고증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부족한 면들을 문학 자료, 도상 자료, 음악 자료 등 다양한 영역의 자료들을 통해 보완해 나간다면 당시 제주 교방 문화의 다채로운 양상들을 보다 더 입체적으로 고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을 통해 신화, 무가, 민요, 풍속 등 특정 분야에만 한정되어 논의되

있던 제주 전통 문화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문화적 자산을 풍부하게 마련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Ⅰ 참고문헌

<자료>

- 김윤식, 『속음청사』, 김익수 역, 제주문화원, 1996.
 남구명, 『국역 우암선생문집』, 김영길 역, 제주교육박물관, 2010.
 『북헌집(北軒集)-제주기록-』, 김익수 역,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 2005.
 『역주 증보탐라지』, 제주문화원, 2005.
 이 건, 『규창집(葵窓集)』, 김익수 역, 제주문화원, 2010.
 이원진, 『(역주) 탐라지』, 김찬흡 외 옮김, 푸른역사, 2002.
 이익태, 『지영록(知瀛錄)』, 김익수 역, 제주문화원, 1997.
 이 중, 『남사일록(南槎日錄)』, 김익수 역, 제주문화원, 2001.
 이형상, 『남환박물』, 이상규·오창명 역주, 푸른역사, 2009.
 정병욱 교주, 국제문화관본 『배비장전·옹고집전』, 신구문화사, 1974.
 『탐라순력도』(영인본), 제주시, 1994.
 『한국구비문학대계』 9집, 3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홍기표 역, 『역주 제주고기문집(濟州古記文集)』, 제주문화원, 2007.

<논문>

- 강경호, 「김춘택의 작자의식과 <별사미인곡>의 창작, 향유 양상에 대한 일고찰」, 『한국시가연구』 35, 한국시가학회, 2013.
 강경호, 「제주의 교방 문화와 기생 활동에 대한 문헌 검토-제주 교방·기생의 문화원형 탐색을 위하여」, 『반교어문연구』 제40집, 반교어문학회, 2015, 69~70쪽.
 김세미오, 「제주유배시사 橋舍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제57집, 한국한문학학회, 2015, 479~483쪽.
 양영자, 「제주지역 가창유희요 고찰」, 『영주어문』 12, 영주어문학회, 2006.
 오성찬, 「제주 역사 관련 고문서에 대한 소고」, 『향토사연구』 제5집,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3.
 임미선, 「《탐라순력도》의 정재 공연과 주악 장면」, 『장서각』 제26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장효순,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연회에 관한 연구-무용을 중심으로」, 『탐라순력도연구논총』, 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 2000.
 좌혜경, 「성읍민속마을의 전통과 무형유산의 보존방향」, 『제주도연구』 39, 제주학회, 2013.
 채형지, 「제주도 무용문화의 소멸적 현안에 대한 인식과 극복을 위한 방안 모색」,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향미연, 「조선 후기 전라도 교방의 현황과 특징」, 『한국음악사학보』 40, 한국음악사학회, 2008.

Theoretical Study for Tradition and Cultural Archetype of the Arts Related to Kyobang in Jeju

- Focusing on Literature Data -

Kang, Kyungho*

This article is designed to examine the traditions of art culture related to the Jeju Gyobang and the Gisaeng and to lay the academic and theoretical groundwork of the cultural prototype. For this purpose, I review various literature data and examine the trends of Jeju'Pungryu scene and Yeonhaeng aspect

Until recently, in the study of traditional culture of Jeju, Gyobang, Gisaeng, related arts and culture were not important subjects. In the cultural environment where the traditional culture of Jeju is emphasized,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arts and culture related to Gyobang and Gisaeng are regarded as secondary. And it can be said that it has been almost cut off when it reaches the present through the transition period. Recently, studies on the Jeju Gyobang and Gisaeng arts culture have been submitted. However, it has not been dealt with in depth yet, and it is demanded to understand it and to prepare its academic and theoretical foundation.

Based on this consciousness, the author reviewed the related literature and focused on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s a result, it was able to confirm the existence aspect, the Gisaeng situation and the approximate activity atmosphere of the Jeju Island in the late Joseon Dynasty. Secondly, in the documentary record showing the aspect of convergence with Jeju

* Gyengsang National University

Island, we examined the patterns of coexistence with the various people who stayed in Jeju Island and the Gisaeng. Third, I focused on the performances in ‘Gyulim’ in the ‘documentary records showing the performances of the Jeju Gisaeng’, and tried to reexamine the scenery of the scenery.

In addition, this article was designed to provide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cultural prototype of the Jeju Gyobang and Gisaeng arts. Literature data alone is hard to find. Therefore, I will integrate various materials such as literature, music, and graphic materials. Through this, I tried to present the possibility of modern illumination of art culture related to Jeju Gyobang and Gisaeng.

[Key words] Jeju Gyobang[Gyobang in Jeju], Arts of Gyobang, Culture of Gyobang, Gisaeng, Yein[artist], Literature Data, Tamlasuryeokdo, Cultural Archetype

이 논문은 11월 15일 접수되어 12월 15일 1차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게재 확정되었습니다.

〈필자 정보〉

성명: 강경호

소속: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메일: classicalpoetry@gnu.ac.kr